64만㎡ 주거·상업·산업용지···신도심 수준 역세권 복합개발

밑그림 나온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올드 앤 뉴 스퀘어'·융복합지구 복합환승센터 민간자본 유치 재추진 장록교 재가설… LH가 맡아서 조성 11월 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올드 앤 뉴 스퀘어 지구'가 조성된다. 또, 평동1차 일반산단 옆 장록동 일대에 는 첨단산업・업무・주거・상업시설이 입주하는 도심 형 융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지난해 말 무산된 복합 환승센터를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재추진하 고, 광주송정역과 도심형 융복합단지를 연결하는 장록교를 재가설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18일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 형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광산구 송정동 944-8번 지 일원 63만9730㎡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 향평가를 앞두고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오 는 11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은 광주시 교통정책과에 서면으로만 제출 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뉜다. 광주송정역 맞은편은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화 공간인 '올드 앤 뉴 스퀘 어 지구'로 조성된다. 광주송정시장 등 주변 자원을 이용해 문화・관광형으로 지역을 재생하는 방안이

광주송정역과 융복합단지 간 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 처리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장록교도 재가 설한다. 융복합지구는 황룡강을 건너 평동1차 일반 산단 옆에 대규모로 조성된다. 지역특화산업인 자 동차, 에너지 및 첨단산업 육성과 광주송정역 근접 입지로서의 도심형 융복합단지(첨단산업+업무+주 거+상업)로 구상됐다.

지난해 말 무산된 복합환승센터를 광주송정역 내 1만7324㎡(2.71%) 면적에 민간자본을 들여 조성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 조감도.

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조성하는 투자선도지구는 60만8943㎡로 전체 지구의 95.19%를 차지한다. 기반시설로 재가설하 는 장록교는 1만3463㎡(2.10%)의 면적이다.

투자선도지구는 크게 주거용지(22만6666㎡), 상업용지(5만4473㎡), 산업용지(4만8616㎡), 공 원·녹지(3만2744㎡) 등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교육시설, 문화시설, 저류지 등도 있다. 상업용지에 는 호텔, 주상복합 등이 산업용지에는 첨단업무, 연 구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투자선 도지구는 신도심 수준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최초 KTX 지역경제거점



1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일원에서 열린 '전라도 천년 기념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소망을 적 은 쪽지를 타임캡슐에 넣고 있다. 뒤로는 전라감영터를 복원하기 위해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보인다.

형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 획 수립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라며 "사 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 등 제반 요인에 대한 영향 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비교함으로써 사업 시 행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9월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일대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 사가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시는 코레일 측과 협약을 하고 시민편익시설 설치, 관문 경관 조성 등에 나서 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날다

광주시·전남도·전북도 3개 시·도 '전라도 천년' 기념식·문화행사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시·도는 18일 전 주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 화행사'를 했다.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한 웅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 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3개 시 ·도 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3개 시·도지사의 희망 메시지 전파, '전 라도 미래 천년의 희망'을 알리는 주제영상 상영, 소망의 글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 새 천년을 여는 두드림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 관현악단, 창극단, 판소리 및 서양 합창단, 비보이 등 120여 명이 출연하는 전북도립국악원 의 대형 '국악칸타타' 형식의 작품 공연도 선보 였다.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3개 시·도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의 이미지를 개 선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해 1월1일 광주에서 천년맞이 타종식을 개최했 다. 이어 4월에는 전남에서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여는 등 공동으로 전라도 천년 기념사 업을 했다.

앞으로도 3개 시·도는 천년의 빛 미디어아트 창 의벨트 조성, 광주 희경루 복원,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사업을 추진해 후손들에게 전라도 천년 유산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의로운 역사를 가진 전라 도가 잘 살아야 '정의가 풍요를 창출한다'는 역사 적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천년 후 후손들에게 오늘이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 사가 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풍요 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의 웅 비를 위해 광주·전북·전남이 다시 손을 맞잡고 뛰 어야 한다"며 "전라도 천년이 시작되고 민선7기가 출범한 올해를 '새천년 호남 도약'의 원년으로 삼 고, 광주·전북·전남이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라도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 동학농민혁명, 5·18민주화운 동 등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결연히 일어나 시대정신을 이끌었다"며 "오늘을 기점 으로 융성했던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하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개 시·도는 2004년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교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11개 상생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며 호남의 공동 발전을 일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교황 "전 세계와 기도하겠다"

김정은 방북 초청 의사 전달

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현지시간) 교황청에서 프라치스코 교황을 면답하 고 한국에서 가톨릭의 역할과 한・교황청 관계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 등 공동 관심 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은 낮 12시 10분부터 38 분 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교황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황이 세계주교대의원회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편 한반 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번영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한 반도 정세의 주요 계기마다 축복과 지지 메시지를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 를 지지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 북한 지도자들의 용기를 평가했다. 또 형제애를 기

반으로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길 당부하면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게 전 세계 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교황 면담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번이 8번째다.

2013년 취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듬해 아시 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김희중 한국 천 주교 주교회의의장을 교황청에 특사로 파견했고,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 하면서 직접 축성한 묵주를 선물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70~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ඊ**농협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